

# 대순진리회의 성지와 순례의 의미

허 남 진

원광대학교 · 연구교수

- |                 |                        |
|-----------------|------------------------|
| I. 머리말          | III. 순례지로서의 성지와 순례의 의미 |
| II. 신앙공간으로서의 성지 | IV. 맺음말                |

## I. 머리말

종교학은 그동안 주로 사상과 교리 중심의 텍스트 연구에 집중하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공간적 전환(space turn)” 혹은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미지, 공간, 의례 도구 등과 같은 종교의 물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실천 행위들에 대한 연구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up>1)</sup>

종교란 단순히 사상이나 교리의 집합체가 아니다. 종교에 대한 이해는 종교사상, 행위, 제도, 조직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한 두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종교의 특정 측면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종교

---

1) 우혜란, 「감각의 종교학을 찾아서」,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뉴스레터 종교문화다시읽기 253호 (2013. 3. 12.)

의 복합성을 연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주제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종교의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대변하고 또 그것들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보여 주는 성지와 순례는 종교를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연구주제이다. 성지는 각 종교들이 성스러움을 지표상에 각인한 물질적 토대이며, 성스러운 존재와 관계를 맺어 가는 매개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는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상징, 장소에 얽혀있는 복잡한 분류와 금기, 장소에 성스러움을 부여하는 다양한 실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정 종교와 관련된 태생의 장소, 순교 장소, 중심 공간, 중요 가르침이 나온 장소 등은 신자들에게 삶의 지표와 모범으로서 기념되고 신심의 고양이나 소원 성취, 속죄 효과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순례대상이 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특정 장소는 다른 장소들에 비해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성스러운 장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지에 대한 연구는 다차원적인 종교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성지와 순례에 대한 연구는 각 종교가 주요 상징체계와 의례문화 등을 보존, 전승, 발전시켜온 중심, 나아가 특정 사회의 문화와 그 역사뿐만 아니라 그 개별 종교가 특정 사회와 맺어온 문화적·역사적 관계 등을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최근 종교학의 비판적 흐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에 대한 연구 역시 텍스트 연구와 함께, 물질, 공간, 이미지 등과 함께 이와 관계되는 실천행위들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순례는 1990년대 이후 인류학, 관광학, 지리학 등 다양한 연구에서 수많은 논쟁을 촉발시킨 바 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논쟁과 이론서들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순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결과물을 축적하였다고 보기에 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서구의 이론서들을 번역하고 인용하는 데 급급하고, 무엇보다 한국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들을 형성시키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순례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과 대별하면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이 지닌 정합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성지와 순례에 대한 연구는 한국종교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새롭게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성지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차선근은 “대순진리회 성지의 특징과 의미”<sup>2)</sup>라는 논문을 통해 대순진리회가 특정한 장소에 성스러움을 부여하는 나름의 방식과 그와 관련된 대순진리회의 신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차선근의 논문은 기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대순진리회의 성지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으로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대순진리회의 성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차선근은 교조의 행적과 관련된 장소, 교조의 무덤은 대순진리회의 성지범주로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대순진리회의 교리와 사상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장소는 현재의 성스러움이 발현되지 않은 즉 성적지(聖蹟地)로서의 의미만 지닌 장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순진리회 도인들이 도장 이외의 장소들을 순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은 좀 더 성지의 개념 확장이 필요하며, 다양한 층위로 대순진리회의 성지개념을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시킨다. 아울러, 대순진리회 성지와 관련된 의례적 실천인 순례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성지를 신앙공간으로서의 성지와 순례지로서의 성지로 확장하여 대순진리회의 성지와 순례의 의미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차선근, 「대순진리회 성지의 특징과 의미」, 『東ASIA宗教文化研究』 창간호, (2009).

## II. 신앙공간으로서의 성지

대순진리회는 구한말에 활동한 강증산 상제(1871~1909)의 사상을 따르는 종단으로서, 1969년 우당 박한경 도전(1917~1997)에 의해 창건된 대표적인 한국 신종교이다. 대순진리회는 강증산으로부터 비롯하여 정산 조철제(1895~1958)가 증산의 사상을 계승하여 1925년 종단 무극도를 창도, 1948년 태극도로 종단 명칭을 변경했으며 우당 박한경도전이 정산의 종통을 계승하여 1969년 4월 태극도에서 분립하여 창건한 종단이다.<sup>3)</sup> 우당 박한경도전은 정산의 화천과 함께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하고 대순진리회 중앙 본부 도장을 서울 중곡동에 창건함으로써 증산에서 정산으로 이어진 교의 체계를 가지고 교학사상의 틀을 완성하였다.<sup>4)</sup> 대순진리회는 강증산을 우주의 최고신인 구천상제(九天上帝) 혹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라고 불리는 최고의 신격을 지닌 신앙대상으로 삼고 있는 종교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대다수 종교들에서 성지는 교회, 사원과 같이 실제적인 의례장소를 의미하거나 해당 종교의 시작, 순교와 같은 과거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한 특정 장소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욱이 종교 성지는 저마다의 성스러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각 종교들이 제시하는 성지개념과 그 범주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특정 장소는 특정 종교의 세계관 혹은 종교사상을 반영하는 장소의 성화(sacrification) 과정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획득하게 되고 성지로서 인식되게 된다.<sup>5)</sup>

대순진리회 성지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일반적

3)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72 (2011), pp.240-250.

4) 윤재근, 「대순사상의 성립과 전개」, 『대순사상논총』 17 (2004), pp.65-66.

5) 허남진, 「한국의 종교성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10), p.1.

논의에서 성지의 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페인(Crisin Paine)은 성스러운 장소를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는데 첫째, 성인의 유품이나 신체 일부 즉 유골이 존재함으로써 성스러운 장소로 형성, 둘째, 성스러운 의미가 있는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셋째, 의례적 봉헌으로 성스럽게 만들어진 장소, 넷째, 영적 느낌을 전하기 위해서 구축된 장소(건축, 정원), 다섯째, 영적 의미가 부여된 장소, 여섯째, 본유의(innate) 성스러움 내지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믿어지는 장소이다.<sup>6)</sup>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종교전통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지의 외연을 규정하였다.

대순진리회는 태생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악산 주변 등 대순진리회의 종교사에서 의미 있는 장소들을 성지로서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장소보다 더 성스러운 장소를 구성하고 있다. 이후에서는 대순진리회는 어떠한 장소를 성스럽게 인식하고 있으며, 왜 그러한 장소를 성스러운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 1. 도장과 영대

대순진리회 역시 그 나름의 교리적, 사상적 체계를 통해 특정한 장소를 성스럽게 인식하고 있다. “상제님을 모신 곳이 영대요, 천지신명을 모신 곳이 도장이다. 참배 와서 꼬부라진 할머니 등이 퍼지는 곳이다.”<sup>7)</sup>라는 훈시는 대순진리회에서 도장(道場)과 영대(靈臺)가 어떠한 공간적 위상을 지니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 주고 있다.

우선, 도장을 대순진리회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종단으로서 대순진리회의 창설자인 우당 박한경 도전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6) Paine, Crispin, “Whose sacred place? Response to Jane Samson”, *Material Religion*, Vol.2(1) (2006), pp.109-111.

7) 1994년 6월 5일 우당 훈시, 『훈시』 (대순진리회 내부 자료)

도장(道場)은 정결(淨潔)하고 신성(神聖)한 곳입니다. 양위 상제(兩位上帝)님을 봉안하고 천지신명(天地神明)이 가득한 신성한 성지(聖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수도(修道)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장 내에서는 물론, 어느 곳에서도 마음 속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거일동(一舉一動)을 신중히 하고 바르게 행하여야 합니다.

안심·안신(安心·安身)하고 수도에 임하기 위해 우리들은 도장(道場)을 수호(守護)하고 있습니다. 수호를 하는 목적은 도인들의 수도·공부(修道·工夫)에 만전(萬全)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수도에 임하는 도인들은 성·경·신을 다하여 수도자의 자질을 한층 더 높여 가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뜻이나 언어, 행동, 처사(處事)에 대해서 날이 가면 쉽게 망각하게 되나, 천지신명들은 인지(認知)하고 있음을 도인들은 항상 명심하여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도장은 늘 신성(神聖)하고 정결(淨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도인들은 항상 심신(心身)을 정결히 하여 작은 잘못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sup>8)</sup>

도장은 성역(聖域)으로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여야 한다.<sup>9)</sup>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 대순진리회는 상제를 비롯한 여러 신명들이 가득한 곳을 가장 중요한 성지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순진리회에서는 구천상제 이하 제 신명들로부터 성스러움이 발현되고 이러한 신명들이 응기하고 있는 장소에 성스러움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는 바로 도장으로 규정된다.<sup>10)</sup> 그곳은 여주본부도장을 포함한 강원도 금강산 토성수련도장, 경기도 포천수도장, 서울 중곡도장, 제주도 제주수련도장 등 전국 5곳이다.

특히 대순진리회의 대표적인 수행공부라 할 수 있는 시학(侍學)·

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35 (1993), p.2.

9)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p.81; 1982년 3월 7일 우당 훈시, 『훈시』 (대순진리회 내부 자료)

10) 차선근, 앞의 글, p.202.

시법(侍法) 그리고 대표적인 의례인 치성<sup>11)</sup>, 그리고 성일(誠日)을 비롯한 각종 행사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장은 대순진리회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이다.<sup>12)</sup>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서는 시학, 시법공부와 수강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대순진리회요람』 수도편 “일정(一定)한 장소(場所)에서 지정(指定)된 방법(方法)으로 지정(指定)된 시간(時間)에 주문(呪文)을 송독(誦讀)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일정’이란 도장을 의미하며 다른 장소에서는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도 대순진리회에서 도장이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순진리회의 성지는 의례적 봉헌을 통한 성지의 형성 혹은 영적 의미를 지닌 장소를 성지로서 인식하고 있다.

도장은 여러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sup>13)</sup>, 그 중에서 신앙의 대상인 구천상제를 비롯한 15신위(神位)를 모셔놓은 영대(靈臺)는 대순진리회의 도장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가 된다. 영대는 신앙의 대상인 구천상제 증산을 위시하여 15신위로 설명되는 제(譜) 천지신명들이 봉안되어 있으며, 치성의식, 시학공부의 강식을 봉하는 곳으로 대순진리회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인식된다. 영대에 봉안된 신위는 ①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 ②조성옥황상제, ③석가여래, ④명부시왕, ⑤오악산왕, ⑥사해용왕, ⑦사시토왕, ⑧관성제군, ⑨칠성대제, ⑩직선조, ⑪외선조, ⑫칠성사자, ⑬우직사자, ⑭좌직사자, ⑮명부사자이다.

11) 치성은 영대에서 봉안되어 있는 15신위에게 정성을 드리는 대순진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이다.

12) 분규 이전에는 여주 본부도장에서 시학공부와 시법공부, 수강, 중곡도장에서 기도 공부, 포천수도장에서 수강, 그리고 제주도장과 금강산 도장에서 연수가 이루어졌다.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8(1999), p.197; 중단 분열의 핵심적인 원인은 우당 사후 신격화 여부이다. 1999년 대순진리회는 영대에 서가여래의 신위를 내리고 그 자리에 우당을 모시자는 측과 영대의 신위를 바꿀 수 없다는 측으로 분열되었다.

13) 여주본부도장은 본전, 포정문, 일각문, 대순성전, 청계탑, 승도문, 정각원, 정심원, 자양당, 일념교, 신생활관, 종고각, 종각(대원종), 대순회관, 신축회관, 관리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순성전에는 상제와 도주의 일대기를 성화로 봉안하고 도전의 성업을 그림으로 모셔놓았다.

이처럼 영대는 천지신명이 거주하는 장소이므로 우주의 모든 신명을 대상으로 치성을 드리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순진리회에서의 영대는 매우 성스러운 장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영대는 역사적으로도 인간의 ‘마음’이외에 ‘임금이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던 대’를 지칭하던 용어로 이른바 ‘성스러운 장소’로 이해된다.<sup>14)</sup> 즉 영대에 구천상제를 비롯한 제 천지신명들이 감응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이로부터 성스러움이 발현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영대를 포함한 도장은 성지로 인식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전국 5개 도장 뿐 아니라 회관을 새로 건립하였을 때도 회관에 구천상제의 진영을 봉안하는 봉안치성이 이루어진다. 대순진리회의 종교조직적 특성에 의하면, 수도인들은 조직상 각 방면의 회관 또는 회실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공간을 통해 수도인들이 체계적인 수도생활을 할 수 있다.<sup>15)</sup> 이 회관 내부에는 봉심전(奉審殿)이라는 별도의 공간이 설정되어 있고 봉심전에는 구천상제의 진영(眞影)이 봉안되어 있다. 하지만 도장과 회관이 동등한 공간적 위상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위계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당의 “회관에서 기도 10번 모시는 것보다 도장에서 기도 1번 모시는 것이 낫다.” 언급은 도장과 회관이 어느 정도 동일한 성지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만 동등한 위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차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16)</sup> 결국 도장과 회관이 신앙공간으로서 성지의 의미를 지니지만 대순진리회의 실제적인 의미의 성지는 치성의례가 도장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도장이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뿐만 아니라, 영대 참배객은 신앙의 대상을 예배하고 또한 수많은

14) 고병철, 「대순진리회의 전개와 특징」, 강돈구 외, 『한국종교교단 연구Ⅱ』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2007), p.211.

15) 이경원, 「대순진리회 치성의례의 종교적 특질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20 (2008), pp.147-148.

16) 차선근, 앞의 글, p.203.

17) 이경원, 앞의 글, p.148.



신명의 존재를 체험하게 된다. 따라서 영대를 새롭게 짓고 신앙대상을 모시게 된 성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치성의례가 이루어진다.<sup>18)</sup> 특정한 장소가 성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례와 같은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며, 그것에 따른 종교적 금기가 설정하게 된다. 아울러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특정한 장소가 선택되고 구획되게 된다.

다음은 대순진리회의 성지는 어떻게 선택되어지고, 특정한 장소가 성스러움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성화의례가 무엇이며, 종교적 금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 2. 성지의 형성과 의례

성지는 초인간적 힘과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의례를 통해 성스러움이 유지된다.<sup>19)</sup> 대순진리회의 성스러운 장소로서 도장 혹은 영대는 대순진리회의 의례를 통해서도 그 성스러움이 이해될 수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신앙체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수도방법으로서 치성의례, 기도의례, 공부의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여 실천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순진리회에서 치성의례의 시간과 장소는 치성의례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상징적 요소이다. 대순진리회의 종교 공동체에 가입하여 수도인이 될 것을 서약하는 입도치성에서의 일시와 장소는 별도의 지정은 없으나, 절기치성과 경축일 치성은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바로 치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도장의 영대이다. 대순진리회의 치성의례는 정월부터 십이월까지에 걸쳐 진행되는 각 치성으로 그중에는 증산의 강세, 화천 치성을 비롯하여 도주 정산의 탄강, 화천 및 봉천명 치성 그리고 여주본부도장 영대봉안 치성 등이 일 년 주기로 이루어진다. 또한, 입춘, 입추, 입

18) 같은 글, p.147.

19) Corrigan, John, *Spatiality and religion*, in *The Spatial Tur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Barney Warf and Santa Arias(ed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009), pp.164-165.

하, 입동, 하지, 동지의 사립이지(四立二至) 치성이 절기가 바뀔에 따라 이루어진다.

치성이 치러지는 시간도 정해진 시각에 맞춰 진행되는데 사립이지(四立二至) 치성은 그 절기가 시작되는 구체적인 시각에 맞춰 치러지며, 그 외 다른 치성들은 대체로 축시(丑時) 정각에 모시게 되어 있다. 또한, 치성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복장은 반드시 한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으며, 정확한 식순에 따라 치러지게 되어 있다.<sup>20)</sup>

본 주제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에서 특정 장소가 성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봉안치성(奉安致誠)’이라는 치성의례를 통해 성스러움이 획득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봉안치성의례는 특정 장소가 진법이 시현되기 시작함을 하늘에 고하고, 이에 따라 감응하게 되는 구천상제의 진영을 봉안하는 의례로서 특정 장소가 성스러움을 획득하게 되는 성화의례로 볼 수 있다.<sup>21)</sup>

대순진리회에서 각 도장이 건립되고 영대를 봉안한 봉안일은 다음과 같다.

중곡도장 (陰) 1971년 5월 24일  
 여주본부도장 (陰) 1986년 10월 25일<sup>22)</sup>  
 금강산 토성수련도장 (陰) 1996년 12월 13일  
 제주수련도장 (陰) 1989년 6월 24일  
 포천수도장 (陰) 1992년 6월 24일

장소의 성스러움을 구현하기 위한 성화의례로서 봉안치성은 그 성스러움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 치성은 봉안을 기념하고 또한 구천상제의 감응에 대한 사례(謝禮)를 위해 매년 봉안일마다 거행된다. 정리하면, 봉안치성의례는 단순히

20) 박마리아, 「포스트모던 사회와 대순진리회-다원성의 구현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20 (2009), pp.34-35; 이경원, 앞의 글, pp.145-147.

21) 차선근, 앞의 글, p.206.

22) 여주도장은 1991년 증축되었다. 현재 영대는 당시 신축된 것이며 1986년에 지어진 영대는 현재 봉강전이다.

특정한 장소를 성지로 만드는 일회성의 성화의례가 아니라 해마다 주기적으로 장소의 성스러움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의례로 볼 수 있다. 특히 도장과 영대가 이후에도 다양한 장소에 건축될 수 있다는 점은 도장과 영대의 성스러움이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영대에 봉안된 구천상제를 포함한 신명들에 의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3)</sup>

한편, 영대의 성스러움은 신도들이 영대에 들어갈 때 취하는 자세 등 일상적인 행위패턴과 구분되는 행위패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례적 장소로서 성스러운 장소는 통제된 행위패턴과 의례적 행위패턴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일상적인 환경과 분리된다. 통제된 행위패턴과 의례적 행위패턴은 일상적인 세계에서의 행위패턴과 의식적 긴장 속에서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상적 장소와 비일상적인 의례화된 장소간의 긴장을 통해서, 성스러운 장소의 인식에서 의례적 행위 패턴의 역할을 관찰해야 한다.

숭도문(崇道門) 안을 정내(庭內)라 하고 그 안에 들어서면서 본전을 향해 읍배를 올린다. 영대 앞을 본정이라 이르며 본정에서는 최경(最敬)의 예로써 진퇴에 지성지경(至誠至敬)을 다하여야 한다. 택시와 버스로 참배 올 시 복개한 도로에서 하차하여야 한다.<sup>24)</sup>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영대는 상제와 천지신명을

23) “잘 알다시피 여기 제주도장을 수련도장이라 한다. 여기를 도장이라 하고 상제님을 봉안했기에 영대라 한다. 영대는 하나뿐이라고 한 것은 하느님을 실제 모신 곳을 영대라고 하고 그런 곳은 한 군데, 우리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대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서울, 여주, 여기에 있는 것이 각각이 아니며 하나이고 다 영대이다. 사람도 여유가 있으면 별장처럼 여기저기 집을 세울 수 있듯이 영대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불교도 석가모니는 한 분이지만, 명산 명소에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셔놓는다. 조계종 산하에 부처님 모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여러 군데 있다 해도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다. 하나다. 상제님을 모시는 곳인데, 10군데라도 많겠느냐?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법에 어긋나면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안 된다. 의아해 하거나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1989년 6월 24일 우당 훈시, 『훈시』 (대순진리회 내부 자료)

24) 1982년 3월 7일; 1983년 5월 1일 우당 훈시, 『훈시』 (대순진리회 내부 자료)

모신 곳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행위패턴과 구별되는 최경(最敬)의 마음과 자세로써 모든 예를 갖추어 진입할 수 있는 장소이다. 신도들은 영대에 허리를 약 45도 이상으로 굽히는 국궁(鞠躬) 자세로 올라가야 한다. 국궁 자세로 올라간 후 자기가 설 자리에 정렬하고, 이후에는 안경 등을 착용하지 않는 자세로 대기해야만 한다.<sup>25)</sup> 영대 참배 시 내수(內修)는 한복을 입어야 하고, 한복 저고리는 단추나 브로치 같은 것으로 앞을 여민 것은 안되는 등 반드시 옷고름이 있어야만 한다. 한편, 외수(外修)는 한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복 정장도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땅을 성스러운 장소로 구획하는 방식 중의 하나는 풍수신앙이다. 대순진리회에서의 성지 조성 역시 풍수 신앙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봉신신앙<sup>26)</sup> 즉 신명들이 땅에 봉해져 있다는 믿음은 좋은 기가 흐르는 곳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설명 체계로 미루어 볼 때 풍수 전통과 연결된다. 실제로 몇몇 풍수전문가들은 대순진리회의 성지인 도장이 보기 드문 희대의 길지라고 평가한다. 여주본부도장은 매화낙지혈(梅花落地穴), 금강산 토성수련도장은 학사비천혈(鶴舍飛天穴), 포천수도장은 선인독서혈(仙人讀書穴), 중곡

25)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p.81.

26) 대순진리회 성지 관념의 근저에는 봉신신앙(封神信仰)이 있다. 봉신(封神)이란 신명들이 어느 특정 영역에 봉해지면 그 특정 영역이 신명들의 권위를 갖게 되고 성스러움이 발현되어 존귀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증산은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크니 이제에는 인존시대라.”고 가르쳤다. 여기에서 천존이란 신봉어천(神封於天) 즉 신명들이 하늘의 영역에 봉해지면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신명의 권위가 하늘에 있게 되어 하늘이 귀해진다는 뜻이요, 지존이란 신봉어지(神封於地) 즉 신명들이 땅의 영역에 봉해지면 신명들의 권위가 땅에 있게 되어 땅이 귀해진다는 뜻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문왕이 신들을 땅에 봉했고 이제까지의 세상은 이러한 신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증산이 구천상제로서 천지공사를 시행하여 새로운 조판(肇判)을 짰고 그에 따라 인존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인존이란 신봉어인(神封於人) 즉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와 관련된 신명들이 인간에게 봉해져 조화(調和=調和+造化)를 이루게 되므로 그 권위가 이제 인간에게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존시대가 열리기 이전이므로, 인간에게 봉해질 신들이 임시로 머물 거처가 필요하게 된다. 현재는 지존시대이기 때문에 신명들은 인존시대의 도래 이전까지는 땅의 영역에 봉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구천상제와 천지신명들이 감응하고 있는 대순진리회의 성지 즉 도장이라고 설명한다. 차선근, 앞의 글, pp.207-208.

도장은 용마포태혈(龍馬胞胎穴), 제주수련도장은 선기옥형혈(璇璣玉衡穴)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 터들은 모두 우당 박한경이 직접 지세를 보고 잡은 자리들이다.<sup>27)</sup> 이러한 풍수신앙에 기반을 둔 대순진리회 성지는 단순히 의례적 봉헌과 인간의 작위적 선택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이미 성스러움이 내재한 장소로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대순진리회의 성지는 대순진리회의 역사적 장소보다는 ‘신앙공간’을 중심으로 그 외연이 규정되고 있다. 결국 대순진리회의 신앙공간으로서 성지는 신명과 교류하고, 우주의 실재를 체험하는 곳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sup>28)</sup>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성지는 인간의 작위적인 공간의 성스러움의 구획이라기보다는 좀 더 공간의 본질적인 성스러움의 드러남을 통한 성지의 형성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 Ⅲ. 순례지로서의 성지와 순례의 의미

#### 1. 순례지로서의 성지

모든 성스러운 장소가 균등한 위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앙리(R. Henrie)와 잭슨(R. H. Jackson)은 미국 모르몬교에 대한 경험적 연

27) 중국도장은 용마산 배꼽바위 밑에 궁궐 형태로 앉아있는데, 전에 내천이 흐르던 곳을 메워 인류를 구제하기 위한 진리의 도장터를 잡았다고 한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용마포태혈(龍馬胞胎血)’ 형국이다. 속설에 의하면 태조의 한양천도를 지지했던 무학대사가 맨 처음 이곳을 궁궐터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소를 끌고 자기 앞을 지나 가던 노인이 이곳을 “하늘의 궁전이 들어설 자리”라는 범상치 않은 말에 뜻을 접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시작된 조선 궁궐터 구상은 왕십리를 거쳤다가 현재의 세종로 1번지까지 옮겨가게 된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나머지 도장들도 모두 배산임수(背山臨水) 형상을 이루는 곳에 건립됐다고 한다. 그중에 강원도 고성 의 토성수련도장은 금강산 제일봉인 신선봉 자락에 위치한 명경지로 꼽힌다.

2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4 (1986)

구를 통해서 3가지 수준에서 성스러운 장소를 범주화하기 위한 유형론을 제안한 바 있다. 모르몬교의 성스러운 장소는 3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첫째, 신화적 종교적 장소(mystic-religious sites)로 모르몬교에서는 이곳에서 신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기원적인 장소(homelands)로 각 개인과 가족들의 뿌리를 표상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장소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성스러운 장소(historical sacred sites)로 그곳에서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성스러움이 부여된다.<sup>29)</sup>

이러한 모르몬교의 성지의 유형화는 어느 정도 대순진리회의 성지 유형에 들어맞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순진리회의 순례지로서의 성지는 강증산이 내려온 강제지, 삼계 구원의 천지공사를 행한 공사지, 상제의 행적을 좇아 발자취를 찾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순진리회의 순례지로서의 성지는 영대를 포함한 도장과 전혀 다른 성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차선근은 대순진리회의 상제의 생가나 통사동 재실, 무극도장 터 등은 당시에는 성스러움의 드러난 성지로서의 성격을 지녔지만, 지금의 그 장소는 그 쓰임이 다하였기에 이젠 성지로서의 생명력을 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장소들은 지속적으로 성스러움이 발현되는 성지의 의미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상제의 성골(聖骨)이 모셔져 있는 오리알 터와 도주가 모셔져 있는 감천 태극도장의 도주님 능소(陵所)는 이런 논의들과는 상관없이 예외로 성지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sup>30)</sup>

하지만, 대순진리회의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는 장소들에 대한 역사자료와 유적, 유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순진리회는 상제와 도주관련 사신과 행적

29) R. H. Jackson & R. Henrie, "Perception of Sacred Space",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 Vol.3 (1983), pp.94-107.

30)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83 (2008)

지들과 관련된 사진 자료를 모아 “종단역사 사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종단 역사 사진전시회는 대순진리회의 많은 수도인이 『전경』을 더욱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전시회에 전시된 사진들은 강증산 외가인 이평면 서산리, 도주의 공부처인 우일재, 통사동 재실, 굴바위, 함안 반구정, 밀양 세천동, 적천사 도솔암, 회문리 회룡재, 동래 마하사. 보수동 도장, 가야산 해인사, 흥재암, 공주 동학사, 태극 도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sup>31)</sup>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대순진리회는 비록 도장과 영대를 제외한 장소들의 특별히 성지로서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순진리회의 종교역사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장과 영대를 중심으로 한 신앙공간으로서 성지와 그 외 수도자들의 신심 혹은 도심을 고취시키고 대순진리회 종교역사적 의미가 담겨있는 특정장소는 순례지로서의 성지의 의미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순례지로서의 성지는 대순진리회의 종교역사와 관련된 장소로 규정되기 때문에 순례지로서의 성지의 수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대순진리회 성지들은 일반적으로 수도인들의 도심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순진리회의 신자들의 순례의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대순진리회의 순례지로서의 성지는 기억의 장소라는 틀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은 일반적으로 장소-지향적 혹은 장소-기반적이다. 캐시(E. Casey)는 기억을 모 기억, 장소 기억, 기념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장소를 중심적인 것으로 여겼다. 장소 기억이란 구체적인 장소는 과거를 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장소를 기억함으로써 상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sup>32)</sup> 기억이란 과거의 전통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와 관련을 맺고 현재에 영향을 미

31)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149 (2013)

32) Edward S. Casey,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pp.186-187; 신지은, 「장소가 상설과 기억: 조르쥬 페렉(Georges Perec)의 장소 기록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45-2(2011), p.249에서 재인용.

친다. 집단기억은 특정 매개에 의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종교성지는 바로 종교의 집단적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종교성지는 종교정체성의 형성과 유지에 직결되는 지리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3)</sup>

후기 고대 그리스도교의 성지순례와 전례에서도 기억과 성지의 연관을 찾을 수 있다. 4세기 그리스도교는 성지건설을 통해 신화와 장소를 결합시켰으며, 순례자들은 이 장소를 찾아 직접 신화를 기억했다.<sup>34)</sup> 이러한 측면에서 기적, 화해, 치유와 영적인 기억들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성지이다. 대순진리회의 영대를 포함한 도장은 신의 현존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성지로서 의미하며, 대순진리회의 순례지로서의 성지는 오직 지나간 일이 되어 버린 신과의 만남을 기리는 역사적 기념장소들로서의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 대순진리회의 순례지로서의 성지는 대순진리회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기억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특히 성지의 의미와 상징성은 그 장소를 통한 종교적 권위와 신도들에게 주는 종교적 메시지는 강력하다. 특히 순례지로서의 성지는 신도들에게 신앙의 원천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결국, 순례지로서의 성지는 단순한 종교역사적 의미만이 담겨있는 곳이 아닌 신도교육의 장소로서 그리고 생생한 해당 종교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킬 있는 매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서 다양한 종교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들에 대한 보존과 순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조의 탄생지나 대각지, 교단 창립지 및 교조의 묘소 등이 위치하는 성지가 대체로 여기에 속한다.

대순진리회를 포함한 한국 신종교 성지들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적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대다수 신종교 성지들은 제대로 보

33) 허남진, 「종교경관연구 시론」, 『종교문화연구』 18 (2012), p.19.

34) 최화선, 「기억과 감각: 후기고대 그리스도교의 순례와 전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17 (2011), p.15.



준,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35)</sup> 강증산의 탄생지나 행적과 관련된 장소들은 대순진리회의 정체성과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장소들이다. 따라서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장소들에 대한 의미 부여와 인식의 전환은 대순진리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순진리회의 성지를 포함한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소멸할 가능성이 많다.

## 2. 대순진리회 순례의 의미

일반적으로, 순례란 원래 의미 있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종교적인 장소를 방문하여, 초자연적인 도움을 얻거나 종교적인 의무를 실행할 뜻을 갖고 행하는 여행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태동 이전에도 유대교의 예루살렘과 이슬람교의 메카와 메디나 순례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종교문화로 정착되었다.<sup>36)</sup> 또한 순례는 종교적 목적을 지닌 여행으로서 일상에서 벗어나 신앙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종교적 경험을 얻고자 하는 종교적 의례의 일종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례는 대부분 종교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현상이다.

오늘날 ‘순례’로 번역되는 라틴어 단어 ‘peregrinatio’는 일반적인 여행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였다. 하지만 흔히 순례는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된 모든 형태를 여행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순례의 동기는 한정되지 않으며, 순례의 여정에 복합적으로 섞

35) 한편 원불교는 다른 한국 신종교들에 비해 성지개발과 보존을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개교 반백년 기념사업회’ 사업의 일환으로 ‘성지장업’이라는 성업봉찬사업을 통해 원불교성지가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원불교의 성지의 외연은 소태산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에 관련된 장소와 함께, 소태산과 함께 법계가 대원정사 즉 대각여래위(大覺如來位)인 정산 송규, 주산 송도성, 대산 김대거에 의해 규정된다. 즉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 등은 소태산을 중심으로 한 성지이며, 성주는 2대 종법사인 정산 송규와 그의 아우인 주산 송도성의 고향을 중심으로 성지화 하였으며, 소태산 및 3대 종법사를 역임한 대산 김대거와 관련하여 만덕산을 성지 외연에 포함시켰다.

36) Simon Coleman & John Elsner, *Pilgrimage: Past and Present in the World Religio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여 있다. 즉, 순례자가 한 장소를 찾아가서 얻기 원했던 성스러움과의 조우는 순례지 장소 그 자체만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 혹은 텍스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회상 등이 포함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sup>37)</sup>

성지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구현한다. 첫째, 신들과의 의사소통의 장소이다. 이 기능은 초월적 영역과 인간계와 연결을 표시하는 상징에 의해 표시된다. 둘째, 성스러운 공간은 신적인 존재와의 의사소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장소는 인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적인 힘이 발현되는 장소이다. 마지막으로, 성스러운 공간은 종교적 세계에 대한 가시적 메타포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즉, 성지는 세계를 구조화하고 삶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는 지도인 것이다.<sup>38)</sup> 좀 더 실천적으로 성지의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순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순례는 성스러움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하나의 장치로 기능한다. 순례는 성스러운 장소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이다. 뒤프롱(Alphonse Dupront)은 순례는 종교적 인간과 공간, 그리고 성스러움, 이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 완성되는 드라마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순례라는 현상 속에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요소가 인간과 공간과의 만남 및 성스러움에의 참여라고 지적했다. 성스러운 장소는 순례를 통한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장소이다. 뒤르퐁의 지적은 순례가 무엇보다도 공간, 장소, 특히 성스러운 장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간, 장소, 특히 성스러운 장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sup>39)</sup>

성지는 역사적, 존재론적, 우주론적, 종교적 사건들이 다양한 이야기의 형태로 응축되어 있는 복합적인 층위로 구성된다. 이렇게 응축된

37) 최화선, 「고대 후기 그리스도교 순례에 관한 연구-4~6세기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pp.35-36.

38) 'Sacred Space',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New York: Macmillan, 1987), pp.7978-7986.

39) 최화선, 「장소에 관한 새로운 종교학적 접근의 모색」, 『종교연구』 34 (2004), pp. 338-339.

이야기의 지점들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순례이다. 어찌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응축된 종교성지는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이야기를 장소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장소화된 시간을 순례에 의해 반복적으로 밟아 소유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인간의 체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순례는 장소 속에 응축되어 있는 과거의 시간 혹은 역사, 이야기가 현재의 시간으로 재현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인간은 순례를 통해 집단적 역사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sup>40)</sup>

순례 장소는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어떤 순례의 장소는 종교적 기적이 나타난 곳, 신의 집 또는 물질적 특징을 담고 있는 곳, 종교적 행정 중심지 등 다양하다. 순례 장소는 인간에 대한 신성의 명시이거나 신성에게 다가가려는 인간의 성향과 연관된 전형적인 장소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순례의 동기는 종교마다 다르나 주요한 목적은 바로 영적 만족감과 평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도장과 영대를 제외한 장소에 특별하게 성스러움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성지순례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대순진리회에 성지순례 자체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먼저 대순진리회의 순례의 의미는 상제가 이 세상에 와서 팔도강산의 각지를 주유하고, 또한 유서 깊은 곳에서 공사로 치결한 일을 본 딴 주유에서 찾을 수 있다.<sup>41)</sup> 여기서 강증산의 주유는 천지공사를 위한 수도자의 삶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성지순례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지순례코스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89년 대학생 성지순례코스 : 송광사 → 대원사(상제님께서 49일 불음불식 하신 곳) → 금산사(진표율사가 솟으로 못을 메우고 솔과 시루를 엮어 그 위에 미륵금불을 모신 곳으로 상제께

40) 이창익, 「조선후기 역사의 우주론적 복합성에 대한 연구 - 역법과 역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p.164.

41)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4 (1986)

서 미륵금상에 임하여 三十년을 지내신 곳) → 동곡약방 → 시루산 황토현 → 전봉준 유적지 → 태인 도창현 무극도장 → 관묘 → 개암사 → 봉래산 → 변산(해왕을 변산으로 모악산과 회문산을 부모산으로 정하여 상곡으로 호르던 육지기운과 바다기운을 상생기운으로 돌리신 곳) → 동학사 → 속리산 법주사.<sup>42)</sup>

1990년 대학생 성지순례코스 : 대원사(상제님 49일 공부하신 곳) → 금산사 3층 미륵전(상제님 30년간 임어하셨던 곳) → 동곡약방(상제님께서 약방을 차리시고 공사를 보신 곳) → 시루산-상제님 생가-무극도 도장자리-해인사(도주님 공부 하신 곳) → 함안 회문리(도주님 강세지)-동학사(도주님 신명해원공사 보신 곳).<sup>43)</sup>

위의 대학생 성지순례코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순진리회는 증산과 도주의 발자취를 찾아 볼 목적으로 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순례는 강증산과 도주의 자취를 찾아보고, 그러한 장소들에서 자신의 신앙전통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순진리회의 순례는 무엇보다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생 성지순례는 1988년 전국대진연합회가 발족하여, 전국대진연합회 주관 하에 1989년 2월 제1회 성지순례가 실시되어 지속되어 오다가, 1999년 종단분규 이후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여주본부도장에서 주관한 어린이 및 청소년 하계·동계 캠프가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지순례가 이루어지자, 많은 사람으로부터 대학생 성지순례를 부활하자는 뜻이 모아지게 되어, 2006년부터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주관으로 대학생 성지순례가 다시 시행되었다. 이러한 대순진리회 순례목적은 대순사상을 보다 깊이 느끼고,<sup>44)</sup> 신앙심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순진리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고 넓게 하는데 있다.<sup>45)</sup>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순

42)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3 (1986)

43)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16 (1990)

44)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15 (1989)

45) 같은 책.

례는 단순히 장소의 성스러움을 만나기 위한 여행이라기보다는 그 장소에 얽혀 있고 담겨 있는 종교적 기억과 그에 대한 회상을 통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순진리회의 순례지로서의 성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례는 순례지에 부여된 성스러운 의미, 이야기와 그에 따른 의례행위로 구성된다. 따라서 순례는 그 장소에 담긴 이야기를 기억하며 재현하는 종교적 행위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순례의 의미에서 대순진리회 성지순례는 강증산의 강세, 천지공사, 행적이 남겨진 장소를 찾아가는 수도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순진리회의 순례는 강증산의 순회주유하고 천지공사를 본 역사의 장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천지공사의 내용과 의미를 깨닫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순례는 개인의 종교적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종교교단의 종교공동체 소속감이라든지 정체성 약화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되기도 한다. 성직자나 종교권위자들은 새로운 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종교전통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순례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종종 새로운 순례지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sup>46)</sup> 이러한 관점에서 대순진리회의 순례지로서의 성지는 대순진리회가 대순진리회의 물리적 영역을 확보하고 순례를 통해 수도적인 삶의 이상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순진리회 순례의 의미는 좀 더 확장된 의미의 층이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적 욕구로 진행되는 순례의 의미는 종단에서 진행되는 순례의 목적과 의미에 상반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46) 특히 원불교는 다른 한국신종교들에 비해 성지개발과 보존을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개교 반백년 기념사업회'의 사업의 일환으로 '성지장엄'이라는 성업봉찬사업을 통해 원불교성지가 개발되었다. 따라서 원불교 성지의 외연은 원불교의 성지의 외연은 소태산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에 관련된 터와 함께, 소태산과 함께법계가 대원정사 즉 대각여래위(大覺如來位)인 정산 송규, 주산 송도성, 대산 김대거에 의해 규정된다. 즉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 등은 소태산을 중심으로 한 성지이며, 성주는 2대 종법사인 정산 송규와 그의 아우인 주산 송도성의 고향을 중심으로 성지화 하였으며, 소태산 및 3대 종법사를 역임한 대산 김대거와 관련하여 만덕산을 성지 외연에 포함시켰다.

## IV. 맺음말

본 논문은 기존 교리, 사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순진리회에 대한 연구경향을 탈피하여 공간과 의례적 차원으로 대순진리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좀 더 대순진리회의 총체적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성지는 어떠한 공간이며,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순진리회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았다. 특정 공간을 성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과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성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체계화 작업 등에 종교의 세계관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자들이 여전히 순례행위를 통해 성지에서 삶의 지표와 모범, 신심의 고양 등을 체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논문은 현재를 살아가는 대순진리회 도인들을 엿볼 수 있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대순진리회 성지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다. 대순진리회 성지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대순진리회 성지의 범위설정, 성지 조성과정과 기준 그리고 맥락 등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대순진리회의 도장의 공간적 구성에 대한 논의와 의례적 장치들을 통해 도장과 영대의 성스러움을 살펴보았다.

둘째, 대순진리회의 순례지로서의 성지를 통해 대순진리회에서 순례가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해 보고자 했다. 순례는 개인의 종교적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종교 교단의 종교공동체 소속감이 라든지 정체성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순례를 권장하고 새로운 순례지를 조성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서구에서는 “종교와 기억 (religion and memory)”이라는 연구 주제를 통해 기억장치로서의 순

례, 정체성 유지를 위한 순례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해 현대 순례의 맥락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대순진리회의 순례가 단순한 영적여행이 아니며, 대순진리회의 집단적 기억의 재생하고 현재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며, 수도의 방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순진리회의 성지와 순례에 대한 연구는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에게 성지와 순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순진리회의 성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순례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여전히 대순진리회에 대한 성지와 순례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부족 때문에 본 논문에서 처음부터 기획되었던 총체적인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실질적인 대순진리회의 현장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자료 등 새로운 자료 발굴이 부족했다. 하지만 본 연구가 포괄하고 있는 주제는 다양한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적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순진리회는 교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신앙 내용이 이질적이라는 지적 제기되고 있다.<sup>47)</sup> 이러한 점은 대순진리회 순례의 양상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단에서는 순례루트 개발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순례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한가지 방안이 대순진리회 성지순례 안내책자 발간과 성지순례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7) 강돈구, 앞의 글, p.258.

## 【참고문헌】

- 『전경』, 대순진리회 교무부, 1974.
- 『대순지침』,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2.
- 『대순회보』, 대순진리회 교무부.
-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72, 2011.
- 고병철, 「대순진리회의 전개와 특징」, 강돈구 외, 『한국종교교단 연구 II』,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2007.
- 박마리아, 「포스트모던 사회와 대순진리회-다원성의 구현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20, 2009.
- 신지은, 「장소의 상실과 기억: 조르쥬 페렉(Georges Perec)의 장소 기록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45-2, 2011.
- 우혜란, 「감각의 종교학을 찾아서」,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뉴스레터 종교문화다시읽기, 2013. 3.
-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 연구』 8, 1999.
- \_\_\_\_\_, 「대순사상의 성립과 전개」, 『대순사상논집』 17, 2004.
- 이경원, 「대순진리회 치성의례의 종교적 특질에 관한 연구」, 『신종교 연구』 20, 2008.
- 이창익, 「조선후기 역서의 우주론적 복합성에 대한 연구-역법과 역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차선근, 「대순진리회 성지의 특징과 의미」, 『東ASIA宗教文化研究』 창간호, 2009.
- 최화선, 「장소에 관한 새로운 종교학적 접근의 모색」, 『종교연구』 34, 2004.
- \_\_\_\_\_, 「고대 후기 그리스도교 순례에 관한 연구-4~6세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_\_\_\_\_, 「기억과 감각: 후기고대 그리스도교의 순례와 전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17, 2011.



- 허남진, 「한국의 종교성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_\_\_\_\_, 「종교경관연구 시론」, 『종교문화연구』 18, 2012.
- Crispin, Paine, “Whose sacred place? Response to Jane Samson”,  
*Material Religion*, Vol.2(1), 2006.
- R. H. Jackson & R. Henrie, “Perception of Sacred Space”,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 Vol.3, 1983.
- John Corrigan, Spatiality and religion, in *The Spatial Tur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Barney Warf and Santa Arias(ed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009.
- Simon Coleman & John, Elsner, *Figrimage: Past and Present in the World Religio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New York: Macmillan, 1987.

▪Abstract▪

## The meanings of Sacred places and Pilgrimages in Daesoonjinrihoe

Heo Nam-jin

Wonkwang University

This paper provides the meaning of sacred places and pilgrimages in Daesoonjinrihoe,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e new religions in Korea. Daesoonjinrihoe stipulates Dojang (道場, it means temple complex) as the sacred places, which presently functions as the center of their religious faith. Also, The Daesoonjinrihoe devotees worship 15 deities at a sacred place, Yeongdae (靈臺).

By seeing meanings of sacred places and pilgrimage in Daesoonjinriho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cess of the sacrificial rite of Daesoonjinrihoe related to the importance of religious ritual or place of faith and sacred places as pilgrimage sites. At this time, I explain the properties of sacrificial rite of it. The sacrificial rite of Daesoonjinrihoe, one of its major rites, is performed at both regular and irregular intervals. It is performed by either an individual or a group at a fixed time and place.

The study of sacred places should focus not only artificial structures such as buildings but also the meanings given to them and the mechanism that created these meanings. Pilgrimage is

journey undertaken by person who consider their destination sacred. By seeing meaning of pilgrimage, this paper focus on Daesoonjinrihoe' role in making a place pilgrimage sites and pilgrimage functions.

The reason I focus on sacred places and pilgrimage in Daesoonjinrihoe is that these sacred places reflect people`s attempt to invent religious memory and identity. Thus, I elucidate the role that Daesoonjinrihoe's sacred places and pilgrimage plays in remembering religious memory. I examine the messages that Daesoonjinrihoe's sacred places intend to convey to the followers through the created sacred places and pilgrimage. Sacred places are significant because it reflect important symbolic features of religion. Sacred places and pilgrimage are vehicles for remembering the religious memory and reinforcing various memories.

Finally, Handing down of our valuable Daesoonjinrihoe's cultural heritage is our duty. So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conserve Daesoonjinrihoe's cultural heritage such as sacred places and concentration upon our interest continuously.

**Key-Words** : Daesoonjinrihoe, sacred places, pilgrimage, Yeongdae (靈臺), Dojang(道場), religious memory and identity

◎ 투 고 일 : 2013년 8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3년 10월 16일~29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3월 9일